

칠레의 '이행기' 작품에 나타난 고문의 상처와 그 치유*

이성훈(서울대)**

- I. 서론
- II. 고문과 상처
- III. 시고니 위버의 진실
- IV. 배신의 시간 속에서
- V. 결 론

I. 서론

1973년 쿠데타를 통해 아옌데 정권을 전복시키고 17년간의 통치 후에 선거를 통해 스스로 권력을 이양한 피노체트의 사례는 중남미 독재정권의 민주화 과정에서 독특한 사례로 간주된다. 1990년 집권한 아일윈 정권은 '동의와 합의에 기반한 이행'이라는 명분 하에 자신의 역할이 갖는 과도적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치적 한계를 분명히 한다. 아일윈 시기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 위원회Comisi n nacional de verdad y reconciliaci n>¹⁾의 활동이후 칠레는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 KRF-2002-072-AL2010).** Seong-H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El trauma de tortura y su tratamiento en las obras de 'transici n' en Chile"

¹⁾ 1990년 5월에 설치된 이 위원회는 1991년 4월 3일 통상 레딕 보고서라 불리는 방대한 분량의 결과 보고서를 내고 활동을 종결하게 된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활동은 과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었으나 사법기능 또는 개인의 민형사적 책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과거 청산과 관련된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고, 아일윈 이후 계속적으로 집권한 ‘꼰셰르따시온’ 정권 하에서도 칠레의 독재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인권침해와 각종 범죄행위와 관련된 책임자 처벌과 사실규명이라는 주제는 주요한 사회적 아젠다를 형성하지 못했다. 이는 아일윈 시기부터 지속된 꼰셰르따시온의 정치적 한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피노체트 없는 피노체트주의’라는 말처럼 피노체트집권기에 구축된 인적, 제도적 방어막과 막강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한 현실적인 제약에서 기인한 점도 크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역관계는 피노체트 이후 과거청산 문제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미봉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보된 과거청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늘 칠레 사회 내부에 내연하게 되는데, 1998년 피노체트가 런던에서 체포되는 사건을 통해 촉발, 격화되게 된다. 피노체트 재판을 놓고 국내외에서 뜨겁게 진행되는 논란과 국내의 극심한 대립은 많은 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피노체트 이후 진행되어 온 ‘동의를 정치’에 기반한 이행기가 과연 과거의 상처를 적절하게 드러내고 치유했는지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제기하게 된다.

아일윈 정권이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설치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 위원회>는 군부의 강한 저항과 당시의 세력 역관계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적 심판의 과정을 거치는 합리적 의미의 과거 청산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결국,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가 제출되기는 했지만 선언적 의미의 과거 청산과 화해를 모색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실종자들의 사체를 찾아내는 작업과 일부 가해자들의 신분을 밝혀내는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법적, 정치적 과거청산 작업은 불가능했다.

이런 이행시기의 칠레 과거 청산이 갖는 한계는 아일윈 이후에도 지속되는데, 런던에서 체포된 피노체트의 재판이 그의 ‘치매’를 핑계로 유보됨에 따라 사법적 판단의 기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법적으로 과거사를 평가하는 작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

라, 과거를 '기록'하는 작업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고,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심판은 '재판'이 아니라 그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의식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른바 '피노체따쇼' 이후의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주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드러내는 이들의 증언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삶에 지독한 흉터를 남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가해자들 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의미의 피해자들의 증언도 칠레 현대사의 비극과 상처를 드러내고, 그 상처의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것이다. 화해가 진실의 철저한 규명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하다면, 칠레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진실 규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화해는 결국 과거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을 복원하고 이 복원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문을 통해 불행했던 칠레 과거사를 드러내고, 군사정권의 폭압성과 그 폭력이 개인에게 가한 상처, 그리고 그 상처 치유과정을 통해 칠레의 이행기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쿠데타 시기 고문의 경험과 그 경험이 결과한 심리적 상처를 다루고 있는 이행기에 출간되어 영화화된 <시고니 위버의 진실>과 <배신의 시간 속에서>¹⁾라는 두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고문과 상처

1973년 쿠데타이후 자행된 '국가에 의한 테러'는 국제 인권 기구

²⁾ <시고니 위버의 진실>(1994, 원제 *Death and Maiden*)은 로만 폴란스키가 아리엘 도르프만의 『죽음과 소녀 *La muerte y la doncella*』(1991)를 영화화한 것이고, <배신의 시간 속에서>(원제 *La flaca Alejandra*)는 마르시아 알레한드라의 『나의 진실 *Mi verdad*』(1992)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이다.

나 칠레내의 인권단체의 보고서나 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밝혀지고 있다.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금기관에서 행해진 고문은 아주 일상적이고 하나의 제도가 되었다(Comit  de Defensa de los Derechos del Pueblo, 1996). 1982년 설립된 <고발과 조사를 위한 고문피해자 상담소 Denuncia, Investigaci n y Tratamiento del Torturado y su Nucleo Familiar(DITT)>의 보고서에 의하면 독재시기는 “죽음, 굶주림, 고문, 감금, 망명, 반대자의 실종 등이 일상적인 시기였다. 폭력, 체계적인 고문시스템, 국가가 저지르는 여타의 테러행위 등은 각각 분리되고, 우발적인 행위들이 아니라, 지배 방식의 한 요소들이었다.”³⁾

고문은 통상 “사회의 소수파가 민주적 수단이 아닌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머지를 통제하면서 권력을 유지할 필요성에 의해 출현한다”. 따라서 통상 고문은 “억압적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을 협력자로 바꾸거나,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저항을 무력화거나, 어떠한 활동도 불가능케 하는 심리적, 신체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 자행되는데”⁴⁾, 고문자는 고문받는 자로 하여금 폭력적인 방식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말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칠레에서 이 시기 자행된 고문기술은 여타 나라들에서 자행된 것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위의 보고서에 의하면 고문 기술자들은 서로 고문기술과 방법을 교환하고 있으며, 이들 고문기술팀은 의사, 심리학자, 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고문자를 관리할 수 있었다. 칠레의 경우 다른 중남미 국가들처럼 고문자들은 브라질이나 미국의 군대에서 다양한 고문기술을 교육받았으며, 중남미 각국의 억압기구들은 고문 기술과 정보, 기술자들을 서로 교환하기도 했다.

3) DITT가 칠레에서 일어나고 있던 고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영망이 된 몸을 가진 한 여자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녀의 가슴은 담뱃불로 지져져 있었고,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멍한 상태였다. 그때부터 우리들은 고문, 박해, 살해, 실종과 같은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여러 종류의 억압 형태들과 직면해야 했다”(Comit  de Defensa de los Derechos del Pueblo, 1989).

4) Paz Rojas B., “La tortura: Causas, efectos y tratamiento”, *Persona, Estado, Poder: Estudios sobre salud mental Chile 1990-1995*, <http://www.derechos.org/nizkor/chile/libros/poderII/cap6.html>

고문은 주로 수용시설에서 진행되었고,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 원칙, 정서, 신념, 가치체계 전반을 왜곡시키고 파괴시켜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 점은 고문 후에 정보당국에 '협조자'가 되었던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고문의 기능은 위에서 언급한 정보를 얻기 위한 현실적 이유 외에도 군사정권이 목표로 하는 '공포의 메카니즘'이라는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 즉, 군사정권이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산주의와 맑시즘이라고 하는 암적 존재를 도려내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자행한 여러 가지 체포, 구금, 추방, 살해 등의 방법들이 일종의 외과 수술적 처방이었다면, 다른 측면으로는 심리적 측면에서 억압적 문화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사회 내에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문화, 공포의 문화를 일상화하게 되는데,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고문이 이런 효과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군사정권은 이러한 억압적 목표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가가 '내전' 상태에 있다는 명분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했으며, 이 외에도 보다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형식의 '심리전'을 기획했다. 이 심리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고문, 처형, 추방, 실종, 위협 등인데, 이 안에 공통으로 내재한 심리적 기제가 바로 '공포(miedo)'라고 할 것이다.

이 공포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가 바로 고문이라고 할 것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고문은 신체에 대한 고문, 심리적인 고문, 성적인 고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피해자의 개인적이고 지적, 정신적, 육체적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사, 심리학자, 보건 담당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고문에 개입했다는 사실이다. 뒤에서 다루게 될 <시고니 위버의 진실>에 등장하는 가해자도 실은 의사의 신분으로 고문피해자를 성폭행한다.

“이 고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억압기구의 구성원들이 개입했는데, 이들 중에는 점점 더 많은 수의 국내나 국외의 학교에서 공부한 의사, 심리학자, 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죄

수들은 각각의 고문이 행해지기 전, 행해지는 동안, 그리고 고문 후에 의사들에 의해 통제되었다고 말하고 있다.”⁵⁾

쿠데타 직후에는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고문이 일반적으로 행해졌으나, 국내외의 문제제기와 감시로 인해 점차 고문의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심리적인 방법, 약물 투여, 시청각적 방식 등의 간접적인 방식의 고문이 선호되게 된다. 특히 여성 수감자의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다양한 방식과 함께, 성폭행의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고문이 피해자의 가치체계 전반을 왜곡시키는 물리적 힘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경우는 이중적으로 고문의 피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처 또한 깊을 수 밖에 없었다.

고문의 목적이 피해자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말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결과로 그 무엇인가를 말해야 했던 사람들이 갖는 고문의 상처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외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또한 고문에 말이 아닌 비명과 침묵으로만 저항했던 사람은 더 큰 육체적 피해 속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 침묵하면서 괄호를 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침묵을 넘어서기 위해 고문이 사용되어지고, 이 고문의 상처 혹은 결과로 또 다른 침묵이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누군가를 말하게 하기 위해 고문을 사용하고, 이 고문의 결과로 야기된 침묵의 고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제 고문이 아닌 방식으로 과거에 대해 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고백에 근거하여 새로운 관계, 즉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가 가능한 지를 작품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을 통해 ‘폰세르따시온’이 행한 완전하지 못한 과거청산 과정과 이것이 야기한 결과,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새로운 과거청산 메카니즘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5) “Las últimas técnicas de tortura aplicadas en Chile”, Comité de Defensa de los Derechos del Pueblo, *Persona, Estado, Poder: Estudios sobre salud mental Chile 1973-1989*, Chile,

III. 시고니 위버의 진실¹⁾

이 작품은 “독재정권이 무너진 지 10년이 지난 남미의 어느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작품의 배경을 명확하게 지칭하지 않지만, 작품의 배경과 사건을 간추려보았을 때 칠레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라를 한정하지 않은 것은 납치, 고문, 살해 등의 행위가 일상화된 중남미적 상황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작품에는 단지 세 명의 인물들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과거 중남미 국가들에 만연했던 실종자, 죽음, 고문의 역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이들의 현재사와 갈등을 통해 과거의 상처와 그 치유에 대한 상징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간단하게 이 작품의 줄거리와 갈등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빠울리나 살라스Paulina Salas는 젊은시절 군사정권에 당한 고문과 성폭행의 희생자로, 지금은 <정의 위원회 Comisi n de Justicia>를 책임지게 될 헤라르도 에스꼬바르Gerardo Escobar의 부인이다. 헤라르도는 대학시절 연인이었던 빠울리나가 속해있던 지하 운동단체의 리더였고, 빠울리나가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불지 않아 체포를 면하여 지금은 성공한 변호사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런 능력으로 인해 그는 군부독재가 끝나고 민정이 시작한 후 과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위원회의 장을 맡아달라는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맡기로 한 위원회는 과거에 일어났던 인권침해 사례들을 조사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망한 사례들만을 다루기 때문에 빠울

<http://www.derechos.org/nizkor/chile/libros/poder/cap6.html>

6) 아리엘 도르프만의 원작과 영화와의 차이점은 장르상의 필요 외에도 두 사람간의 과거를 보는 시선의 차이에서도 기인한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로베르토에 대한 명확한 용서 유무를 비롯한 명확한 결론의 유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Bernard Schulz(2000)을 참고하시오.

리나와 같은 사례들은 다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다.¹⁾ 이처럼 아월원 정권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 위원회>의 한계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정의위원회>의 제한된 조사능력은 빠울리나와 같은 사례들을 조사하지 못함으로써 과거청산에 본질적인 제약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건은 우발적인 계기를 통해 급격하게 변화한다. 즉, 우연히 자신을 고문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잔인했던 사람으로 목소리를 기억하는 한 남자가 빠울리나의 집에 찾아오고, 그녀는 목소리로 그가 자신을 성폭행했던 의사인 로베르또 미란다 Roberto Miranda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로베르또는 이 작품의 원제가 되는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라는 작품을 들려주면서 지하 정치 활동 혐의로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있던 빠울리나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던 것이다. 이제 빠울리나는 로베르또를 위협해 과거의 죄를 고백할 것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로베르또는 자신의 개입을 부정하고 헤라르도는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 침묵하기

이 작품에는 두 층위의 침묵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빠울리나의 경우에는 자신이 로베르또에게 성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무려 10년 이상의 세월을 침묵해 오고 있지만, 고문당했던 기억은 현실 속에서 여전히 빠울리나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이 점은 그녀가 누군가가 한 밤에 찾아오자 권총을 들고 숨을 때 보여주는 그녀의 신경증적인 태도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녀가 지난 14년 동안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녀는 고문 속에서도 자기 동료들에 관한 정보들을 말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심한 고문과 성폭행을 당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 자신의

7) 이 점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 위원회>와 <레딕 보고서>에 대한 은유로 읽힐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명확히 존재하는 범죄행위를 다룰 수 없고, 명확한 책임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드러나 있다.

상처에 가위눌려 있는 것이다. 자신이 이 가위눌림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발화하는 것이다. 치료는 즉 자신의 트라우마에 대해 말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말하기를 통해서만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다.

로베르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군사정권에 참여한 의사로서 과거의 기억을 은폐한 채, 이웃에게는 친절한 이웃으로, 바람직한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은 늘 위태로운 것이었고, 이는 헤라르도의 직업과 과거의 범죄적 행위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과민한 반응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불안은 그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대해 발화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그 사실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는 과정은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싸울리나의 경우에도 과거의 상처에 짓눌려 자신의 기억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의사인 로베르또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으로 인해 과거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양자간의 침묵을 통해 지금까지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각 개인들의 삶에 부하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제 이 침묵들이 어떻게 발화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침묵은 피해자의 개인적 트라우마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군부독재이후 칠레 사회전체가 집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점은 이 작품이 1991년 런던에서 초연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전 칠레에서는 워크숍 과정에서 배우나 공연장을 구하기가 힘들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칠레 사회에 과거에 대한 발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었고, 이러한 경직된 분위기로 인해 침묵은 더욱 두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Pinet: 96).

2. 화해를 위한 말하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결국, 과거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인정하기, 즉 말하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작품 속에서 빠울리나가 자신을 고문한 의사를 식별하는 것이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는 점은 이런 맥락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 남자가 고문자였다는 것을 확인하여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빠울리나로 하여금 억압되어 있던 과거의 상흔을 현재에서 해결하고 화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결국 그녀의 ‘말’을 통해서 이다. 그러나 그녀의 발화는 고문이라는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기 의지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고백하고 화해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Reynolds: 34).

이 작품 속에서 빠울리나는 말을 할 수 없거나, 침묵을 택했던 칠레 독재시기의 다른 희생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고, 로베르또는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한 가해자의 역할을 하지만, 현실 속에서 침묵을 할 수 밖에 없는 또다른 의미의 피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Reynolds: 34).

이 양자간의 역관계는 빠울리나가 의사를 손과 발을 결박한 채 의자에 묶어두고, 진실을 고백할 것을 강요하는 과정을 통해 역전된다. 이제 빠울리나는 의사에게 ‘말하기’를 강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의사는 말하기를 거부하는 전복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빠울리나는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이 의사에게 수차례 고문뿐만 아니라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드디어’ 발화함으로써, 자신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단초를 마련하게 된다. 이제 의사만 자신의 과거를 말하면 상처의 치유의 화해가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과거를 밝히기를 거부하며 자신은 결백함을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빠울리나는 좀더 과격한 방식으로 의사를 죽여버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게 되고, 그녀의 남편인 변호사는 그녀를 설득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를 심문하고 처벌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빠울리나는 조작되었다고 믿는 의사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그의 진술을 확인하려고 한다.

완강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던 로베르또는 마지막 순간 낭떠러지 앞에서 로베르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빠울리나는 그러는 그를 남겨두고 되돌아선다. 작품 속에서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다음 장면에서 이 세 명의 인물이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 연주회장에 같이 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두 층위의 침묵이 모두 극복되어지고 진실에 기반한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3. 인물의 상징적 맥락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들은 독재 이후 과거 청산과 관련하여 칠레사회내의 전형적인 세 가지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빠울리나가 피해자를 대변한다고 하면, 로베르또는 가해자를, 헤라르도는 당시 폰세르따시온이 취하고 있는 정치적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작품은 피노체트 독재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진행되던 1991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90년 집권한 폰세르따시온의 아일윈 정권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 위원회>을 발족하고 이 위원회는 이듬해 4월에 보고서를 발표하는 데, 이 보고서는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해 ‘공정한 배상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적 조치들을 권고’하는 일이 주된 임무였다(Pinet, 95-96: 이국운). 이처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 위원회>의 권한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과거 인권침해와 관련된 당사자나 그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밝히는 것도 불가능했다. 또한 오로지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나 혹은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사건만을 조사할 수 있었다. 여러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아일윈은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 역시 과거에 경험했던 공포를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장

악하고 있는 군부에게 또 다른 군사쿠데타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가능한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만 가능했다.(Morace: 136-40) 이 위원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도르프만으로 하여금 헤라르도 에스꼬바르라고 하는 이중적 성격의 인물을 만들어 내게 한다. 헤라르도는 합법적 틀 내에서 과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이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 인물은 당시 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한계와 함께 당시 칠레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중적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헤라르도는 이 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옹호한다.

“그래, 한계가 있지. 우리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게 내 버려 뒀.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단 말야. 우리는 우리의 조사 결론을 출판할 거고, 그 공식적인 보고서에는 과거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객관적으로 쓰여지게 될 거야. 그러면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지 못하겠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조국은 다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게지.”

이 입장은 군부와의 세력 역관계에서 당시 폰세르따시온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어찌보면 당시 칠레 정치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현실 타협적인 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타협적인 태도는 당시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현실 정치인들이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쉬운’ 과거청산의 길을 선택하게 된 핑계가 되기도 한다. 헤라르도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합리적 절차에 대한 강조와 과거청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당시 칠레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던 청산 과정의 타협적 성격에 대한 공격으로 읽혀진다. 폰세르따시온의 입장에 대한 판단은 여기서 다를 문제 문제는 아니지만,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고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는 일에서부터 과거청산과 화해가 출발한다는 점을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 위원회>의 활동은 한계가 있고, 이행기의 과거청산 과정 역시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작품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질렀고, 경험했던 것을 말하고, 이 말하기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이 진실을 통해 용서와 화해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고문의 가해자와 피해자, 고문의 기억으로 침묵하고 있는 사람과 그 기억을 은폐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진실을 드러내는 방식은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문의 상처를 기억하는 당사자들의 합의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들은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는데, 작품의 마지막 장에서 빠울리나와 헤라르도가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를 연주하는 연주장에 있고, 이층의 객석에는 의사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와 빠울리나가 서로 바라본다. 바로 전 장면이 빠울리나가 의사를 죽일려고 하는 순간에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가 죽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작품을 통해 의사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빠울리나의 고문시 의사가 사용했던 음악으로 그녀에게는 공포의 아이콘으로 작동하고 있는 <소녀와 죽음> 연주회에 남편과 함께 앉아 있고, 의사 역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연주를 관람하고 있는 장면은 이제 서로의 공존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IV. 배신의 시간 속에서

<배신의 시간 속에서*La flaca Alejandra*>(1993)는 마르시아 알레한드라 메리노 베가 Marcia Alejandra Merino Vega의 증언적 자서전인 『나의 진실*Mi verdad*』(1993)을 까르멘 까스띠요 Carmen Castillo가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이다. 『나의 진실』은 MIR(Movimiento de Izquierda Revolucionaria, 혁명적 좌파 운동)의 열성 조직원이었던 마르시아 알레한드라가 군사 쿠데타 후에 DINA(Dirección Nacional de Inteligencia)

에 의해 체포되어 고문 끝에 자신의 동료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후, 15년 이상을 군사정권의 억압기구에 협력해 왔던 자신의 과거를 공개적으로 털어놓은 증언이다. 이 작품을 영화화한 까르멘 까스띠요는 알레한드라의 밀고로 자신의 혁명동료이자 연인이었던 미겔 엔리게스를 체포작전 중 총격으로 잃게 되고, 임신 중인 몸으로 자신도 체포되어 결국 아이를 잃게 되고 프랑스로 망명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마르시아 알레한드라와 까르멘의 경험으로 인해 이 작품에는 다양한 종류의 갈등이 함축되어 있다. 또한 작가는 작품 속에 인권침해 사례의 구체적인 관련자와 책임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종 구금자들의 이름을 적시하여 이행기의 미온적인 청산과정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 작품은 고문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동시에 경험한 한 인물의 증언을 통해 고문의 경험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시키고, 그 파괴의 영향이 어디까지인지, 이들 간의 화해가 가능한지, 또 이행기의 진실과 반성이 없는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드러낸다.

1. 또 다른 고문의 기억

『소녀와 죽음』에서 빠울리나가 고문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문이 주는 심리적 외상의 크기와 그것의 극복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면, 직접적인 고문의 피해 외에도 고문을 통해 ‘가해자’의 편에 설 수 밖에 없었던 마르시아 알레한드라의 경험과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까르멘 까스띠야의 이야기는 또 다른 층위의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

MIR의 다른 조직원이 나에 관해 불었기 때문에 나는 1974년에 체포되었다. 나에 대한 직접적인 고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고문당하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내가 겪어야 했던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공포, 두려움,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공황 상태..... 발가벗겨진 채, 전기고문으로 헐떡이면서, 수치심과 계속되는 폭력들로 인해 나

는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마리아 앙헬리카 안드레올리라는 첫번째 이름을 댈 수밖에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것을 느꼈다. 그 당시 내가 가장 좋아하던 것을 배신해 버린 것이다. 그것이 내가 되돌아 올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Mi verdad*, 6).

이렇게 그들의 폭력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던 그녀의 증언은 고문에 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내가 벗었는지, 혹은 그들이 옷을 벗겼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내 옆에서 로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 높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문하는 동안, 가슴을 만졌고, 음탕한 눈빛으로 내 몸을 보면서 내 몸이 미릿하다고 웃었다. 그들은 질과, 항문, 가슴, 특히 성기에 전기고문을 했다.

나는 언젠가 그들이 고문을 멈출 것이고 내가 결국 정보를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실은 절망적으로 고문을 멈추게 할 무엇인가를 의식 속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다(32).

고문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규정하던 가치관과 신념을 배신한 마르시아 알레한드라는 이제 배신자라는 심리적 자책 속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직원들의 이름과 주소를 건네주고, DINA의 공식적인 협력자라는 신분으로 석방이 되게 된다. 이후에도 그녀는 좌파 조직에 대한 정보와 조직 활동, 사진 등을 분석하여 직원들을 선별해 내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대의를 배신했다는 자책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 정보를 제공했을 때, 나는 당을 배신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내 세계는 철저히 무너진 것이다. 당과 혁명에 대한 나의 헌신이 절대적이고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또한 철저한 파멸을 의미했다(24).

마르시아 알레한드라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협력한 것은 고문의

공포 외에도 이러한 자포자기 심정이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정보기관이 과거 다른 나라에서 협력자들이 어떤 보복을 당했는지와 그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협박성 거래도 큰 영향을 주었다. 실제로 그녀의 배신으로 조직은 큰 타격을 입었고, 이에 따라 MIR에서도 공개적으로 보복을 선언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는 협력자가 되면 자신의 신변을 보장하고, 석방하겠다는 DINA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2. 증언의 의미

고문이라는 강제적인 방식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상황에 직면해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는 것을 말함으로써 고문으로부터 자신의 육체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말하기에 개입해 있는 고문의 효과는 갈등과 파괴를 생산해 내는 부정적인 것이지만, 마르시아 알레한드라의 증언이 갖는 말하기는 차별성을 갖는다. 즉, 자신의 과거에 대해 스스로 침묵을 깨고 발언함으로써,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다른 메카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하기 과정을 통해 그녀는 까르멘과의 관계를 통해 보여지듯이, 자신의 피해자들과 화해하게 된다. 그녀 스스로 생명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하게 됨으로써, 화해의 단초를 마련하고 까르멘도 이러한 마르시아 알레한드라를 용서함으로써 화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남아있는 침묵은 그녀에게 고문을 자행했던 가해자들의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처럼, 화해가 진실에 기반한 서로의 이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을 때 먼저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월윈 정부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 위원회>가 보여주듯이, 그 이름을 구체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후의 사법적 청산 과정의 지지부진함을 통해 볼 때 이제 다른 식의 호명이 필요하다는 게 자명해졌다. 그녀는 이런 맥락에서 자신과 관계했던 인물들의 구체적인 이름, 직위, 조직 구성 등을 자

신의 증언이라는 형식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시아 알레한드라의 증언은 이들의 침묵을 깨뜨리고, 이 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신원하기 위한 제의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녀는 이제의를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람들의 실명과 자신이 보고 가지고 있던 구금/실종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의 범죄적 행위들을 드러내고 피해자들을 ‘알수없음’이라는 폭력적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름과 성을 가진 그 폭력의 실행자들을 익명화해야 한다는 이행기의 과거청산 과정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공식적 차원의 과거 청산이 아니라, 증언에 기반한 ‘비공식적 차원의 진실규명과 이에 기반한 화해가 모색되는 것이다. 우선 그녀는 자신의 진실을 털어놓고자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적 갈등과 외부의 방해가 있었음을 말한다.

약 4개월전부터 비록 내 목숨을 내 놓는다 할 지라도 진실을 향한 첫발, 그리고 이것을 통해 나의 자유를 위한 첫발을 내딛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았습니니다.(...) 진실을 말하기를 얼마나 고대했었는지 아세요? 이러한 저의 바램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자주 가로막히곤 했습니다.(7)

이제 제가 이 증언을 한다면 그것은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내 개인적인 바램을 넘어서, 정의를 달성하겠다는 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실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것을 통해 16년 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공포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증언일 뿐입니다.

이제 마르시아 알레한드라의 고백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고문기관에 넘겨주었다는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과거와 관련 있는 누군가를 호명하고 싶어한다. 이 호명을 통해 침묵하고 있는 가해자들이 진실에 대해 입을 열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DINA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이름과 자신이 알고 있는 구금/실종자들의 이름을 부록의 형태로 호명하는 과정을

통해, 배신으로 인한 자신의 심리적 부채를 덜어내고, 자신과 자신의 피해자들 간의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녀의 증언에 혼재되어 나타난 희생자들과 가해자들의 이름은 불균등하게 위치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여전히 구금/실종자들의 최종 상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당시의 가해자들은 아무런 사법적, 정치적 청산의 조치를 밟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고문의 피해자로서 겪은 경험과, 또 자신이 가해자로서 행한 ‘협조’에 대해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억눌러 왔던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또 다른 침묵의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여전히 칠레의 과거 청산의 과제가 미완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기억의 복원

까르멘 까스띠요가 『나의 진실』을 그 자신이 직접 출연하는 다큐멘터리로 만들면서 마르시아 알레한드라와 함께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수용소와 고문이 행해졌던 장소를 방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화해는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관련자를 처벌하는 과정이 아니라, 과거의 부하에서 벗어나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으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뿐만 아니라 넬리 리처드가 말하는 것처럼 이 시기에 만연된 배신과 불신의 정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행기의 과거청산 정책에 대해 불신을 직접적인 형태로 들어내고 있는 넬리 리처드의 다음 진술을 살펴보기로 하자.

배신을 용서할 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작가들(즉, 마르시아 알레한드라, 루스)에 의해 고발되어 죽어간 사람들의 기억을 우리는 배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들이 자주 관련된 제3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된 진실’만을 고백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출판된 이 진실들이 최종적인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Richard, 2001: 58)

넬리 리처드의 이 진술에서 보여주듯이 이행기의 공간 내에 팽배해 있는 배신에 대한 두려움 혹은 그 가능성에 대한 집착이 칠레의 일상적 심리적 기제라고 했을 때, 이는 이행기의 과거 청산 정책이 갖는 진정성과도 연결된다. 즉, “이행의 공식적인 슬로건이 모든 절차나 과정, 행위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겠다는 투명함이라고 할 지라도, 사적인 영역(비밀)과 공적 영역(고백된 것) 사이의 분리가, 비밀스런 통제, 공개가 유보된 자료들, 비밀스런 명령들로 복도를 채우면서 민주적 공식성의 내부에 계속 가면을 쓴 채 작동”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Richard, 2001: 59). 이행기의 과거청산 과정이 여러 갈등하는 사회세력간의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칠레내부에서 과거청산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유보된 상태에서 은폐되고 있다는 가정이, 상대방의 진술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진실규명과 화해를 통한 과거청산 작업이 이를 강제할 사회적, 제도적 힘을 갖지 못해 진실규명이 진전되지 못하고, 이행기의 과거청산 과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일상적인 가운데, 마르시아 알레한드라의 고백과 『『나의 진실』』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 까르멘 까스띠요의 경우는 더욱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아무런 기록도, 아무런 증인도 없는 기억 상실의 시대’에서 이런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는 증언들이 바로 나라 전체의 기억을 복원하고 과거청산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기 때문이다.

진실을 위해 자기를 드러낼 용기와 이 용기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까르멘의 태도가 과거의 갈등을 해결하고, 포스트 독재 시기의 칠레 사회의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해가는 중요한 태도가 될 것이다. 자시 생명을 담보로 한 이런 고백의 진정성을 통해 칠레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기억의 조각들을 드러냄으로써, 공식적인 역사가 방기하고 있는 진실을 재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영화를 통해 까르멘은 진정한 화해는 결국 이렇게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이행기에 나온 두 작품을 통해 피노체트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칠레사회가 직면한 과거청산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고문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불완전한 과거청산 과정이 남긴 칠레사회의 균열과 앙금을 덜어내고 현실 속에서 가해자와 화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작품 모두 아일윈 정부시절 진행된 <화해와 진실을 위한 국가위원회>로 대표되는 공식적인 과거청산 과정이 그리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첫 작품에서 한 인권변호사가 부인인 피해자와 함께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지만, 그의 수단은 어디까지나 ‘합법성’의 틀 안에서이고, 이 틀 안에서 진실규명은 쉽지 않다. 그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고 가해자들이 알리바이를 구성해 놓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위원회가 명확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그 책임자를 밝히기 보다는, 과거사 정리와 보상을 통한 선언적 의미의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는 한계에서도 드러난다.

두번째 작품 또한 고문을 통해 자신이 속한 정치조직의 직원들을 제보해야 했던 마르시아 알레한드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고문의 폭력성과 그 고문의 흔적이 15년이 지난 시기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가해자들의 익명화에 맞서 체포, 구금, 고문과 관련되었던 DINA의 직원들의 이름을 명시함으로써, 이행기의 정책과는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 즉, 과거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이 진상을 밝힌 다음에야 비로소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행기의 ‘동의를 합의’에 기반한 청산이라고 하는 과거사에 관한 논의는 선언적 수준에서 청산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동

의를 얻어내지도 못하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통과제의로 전략하고 말았다. 이렇게 무화된 과거청산 과정으로 인해 칠레사회내부에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언제든지 재연할 가능성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이는 1998년 런던에서 피노체트가 체포된 후 보여진 칠레의 극심한 분열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결국, 법적, 정치적 과거청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시기를 기억하는 피해자들의 증언들은 과거사를 다시 '기록하고', 진정한 화해를 모색하는 출발점으로 이해될 것이다. 특히 과거사의 가장 폭력적인 형태의 하나인 고문의 상처를 드러내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다른 두 작품을 통해 칠레 사회가 남겨두고 있는 동의에 기반한 화합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동의라는 수사에 의해 주변화 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 살펴보는 일은, 진실 규명에 기반하지 않는 화해라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의와 화해라는 이행의 논리아래 주목받지 못한 다른 이야기를 복원하여 진정한 화해의 계기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El presente trabajo trata de investigar el proceso de la Liquidación del pasado después de Pinochet a través de dos textos como *La muerte y la doncella* y *Mi verdad*. En especial, hemos analizado cómo las víctimas se escapan de su trauma de las heridas de tortura y se reconcilian con sus victimarios de la realidad. Es mi propósito investigar el modo de cómo se resuelven la grieta y el conflicto de la sociedad chilena en cuanto al legado histórico de Pinochet en esta reconciliación entre las víctimas y los victimarios,

Estas dos obras tienen como trasfondo, la crítica contra el procedimiento oficial de "la liquidación del pasado", el cual son representados en la "Comisión nacional de verdad y reconciliación" bajo el gobierno de Aylwin. Como

hemos visto en estos textos, este procedimiento oficial según “la política de los acuerdos” nos muestra que el tema del pasado sigue quedándose sin resolver. La liquidación incompleta del pasado otra vez causan conflictos internos en Chile a través del arresto de Pinochet.

La noticia de su arresto en Londres, que en octubre de 1998 hizo estallar la energía contestataria del tema de los derechos humanos en Chile, remeció nuestra problemática de la memoria. Mientras las máquinas oficiales de la Transición sellaron su “democracia de los acuerdos”, el caso Pinochet evidenció la necesidad de reexaminar críticamente la lógica encubridora de estos pactos transicionales.

Sin embargo, bajo la condición de que la liquidación legal y política es realmente imposible por la barra de seguridad construida por Pinochet, los testimonios son considerados, como se ven en los dos textos, como el punto de partida para recordar el pasado y buscar la verdadera reconciliación entre las víctimas y los victimarios. A través de esto, hemos dado como conclusión de que la reconciliación verdadera parte de la verdad sobre el pasado y que en busca de la verdad, los testimonios ofrecen informaciones que la historia oficial oculta y malinterpreta.

Key Words: novela contemporánea chilena, transición, tortura, trauma, Pinochet /
칠레현대소설, 이행, 고문, 상처, 피노체트

논문투고일자: 2003. 4. 24

게재확정일자: 2003. 5. 17

참고문헌

- Avelar, Idelber(2000), *Alegorías de la derrota: La ficción postdictatorial y el trabajo del duelo*, Santiago: Editorial Cuarto Propio.
- Barsky, Robert F.(1997), "Construction and Representation in *Death and the Maiden*", *Sub-Stance: A Review of Theory and Literary Criticism*, Vol. 26, No. 3, pp. 66-89.
- Brooksbank Jones, Anny, and Ronaldo Munck(2000), *Cultural Politics in Latin America*, London/LLC.,NY.: Macmillan Press LTD/ST. Martin's Press.
- Castro, Precio B. de(1998), "La muerte y la doncella: De quién son las bolas? Oprimido oprimido y viceversa", *Revista Chilena de Literatura*, No. 52, Abril, pp. 61-67.
- Cherersky, Isidoro y Jacques Chonchol(com.)(1985), *Crisis y transformación de los regimenes autoritarios*, Buenos Aires: Editorial Universitaria de Buenos Aires.
- Eltit, Diamela, "Cuerpos Nómadas", *Hispanica*, No. 75, pp. 3-16.
- Jara, René y Hernán Vidal(eds.)(1986), *Testimonio y literatura*, Minnesota: Institute for the Study of Ideologies and Literature.
- Morace, Robert A.(2000), "The Life and Times of *Death and the Maiden*",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Vol. 42, No. 2, Spring, pp. 135-53.
- Nelson, Alice A.(2002), *Political Bodies: Gender, History, and the Struggle for Narrative Power in Recent Chilean Literature*, London: Associated Univ. Presses.
- Pinet, Carolyn(1997), "Retrieving the Disappeared text: Women, Chaos & Change in Argentina & Chile after the Dirty Wars", *Hispanic Journal*, Vol. 18, No. 1, Spring, pp. 89-108.
- Pizza, Michael and Marc Zimmerman(1998), *New World (Dis)Orders and Peripheral Strains: Specifying Cultural Dimensions in Latin American and Latino Studies*, Chicago: MARCH/Abrazo Press.
- Reynolds, Bonnie Hildebrand(1997), "Voz y memoria en el teatro hispanoamericano reciente", *Latin American Theatre Review*, Vol.

- 30, No. 2, Spring, pp. 31-43.
- Richard, Nelly(1994), *La insubordinación de los signos(Cambio político, formaciones culturales y políticas de la crisis)*, Santiago: Editorial Cuarto Propio.
- _____ (ed.)(2000), *Políticas y estéticas de la memoria*, Santiago: Editorial Cuarto Propio.
- _____ y Alberto Moreiras(eds.)(2001), *Pensar en/la postdictadura*, Santiago: Editorial Cuarto Propio.
- _____ (2001), *Residuos y metáforas(Ensayos de crítica cultural sobre el Chile de la Transición)*, Santiago: Editorial Cuarto Propio.
- Schulz, Bernard(2000), “Lo difuso de la política en la versión cinematográfica de La muerte y la doncella”, *Revista Chilena de Literatura*, No. 56, Abril, pp. 127-34.
- Vidal, Hernán(1985), *Fascismo y experiencia literaria: reflexiones para una reanonización*, Minnesota: Institute for the Study of Ideologies and Literature.
- Comité de Defensa de los Derechos del Pueblo(1989), *Persona, Estado, Poder: Estudios sobre salud mental Chile 1973-1989*, Vol. 1, Chile, <http://www.derechos.org/nizkor/chile/libros/poder/index.html>
- _____ (1996), *Persona, Estado, Poder: Estudios sobre salud mental Chile 1990-1995*, Vol. 2. <http://www.derechos.org/nizkor/chile/libros/poderII/index.html>